

“한국판뉴딜 2025년까지 220조 투자”

문 대통령 뉴딜 전략회의 주제

“디지털·그린에 휴먼뉴딜 새 축”

뉴딜펀드 1000억원 추가 조성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2025년까지 한국판 뉴딜 총 투자 규모를 기존의 160조원에서 220조원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코로나의 위협이 여전한 가운데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의 엄중한 상황을 맞았지만 한국판 뉴딜은 계속 전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총투자 규모의 대폭 확대와 함께 우수한 지역뉴딜 사업을 지원해 지역의 적극적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 구석구석까지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것”이라며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1000억원을 추가로 조성해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판 뉴딜의 두 기둥을 이뤘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 더해 ‘휴먼 뉴딜’을 또 하나의 새로운 축으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전국민 고용안전망 구축, 부양의무자 기준 전면폐지 등 고용안전망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할 것”이라며 “사람투자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프트웨어 인재를 비롯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신성장산업 인재 육성을 지원하고, 청년층에게는 맞춤형 자산형성 및 주거 안정,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전했다.

기존의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에도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일상과 전산업에 5G와 인공지능을 결합하고 메타버스, 클라우드 등 ICT 융합 신산업을 지원해 초연결·초지능 시대를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온실가스 측정·평가시스템을 정비하고 저탄소 경제 전환을 촉진할 것”이라며 “디지털·저탄소 경제 전환의 과정이 공정하게 이뤄지도록 노동자들의 재취업 지원도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한국판 뉴딜의 지난 1년에 대해

“코로나 위기 대응을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전략으로 출발했지만, 저탄소 경제 전환을 위한 그린뉴딜을 추진하며 본격적으로 진화했다”며 “적극적 재정투자가 마중물이 됐고 민간참여도 활성화됐다”고 회상했다. 또 이날 고용안전망 확충 등 휴먼뉴딜을 추가해 한국판 뉴딜이 완전한 모습을 갖췄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에서도 한국판 뉴딜이 세계가 추구하는 보편적 방향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우리 선택이 옳았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4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대선 경선 전선 ‘반이재명→반이낙연’ 급반전

이재명 “본인 주변부터 돌아와야”

추미애·박용진도 공격 가세

정세균 ‘민주당 적통론’ 내세워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들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1위 후보 집단 공격’ 양상을 보이고 있다. 경선 초기에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를 1위를 기록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여타 후보들의 ‘반영연대’가 두드러졌지만 최근 반등하고 있는 이낙연 후보에 대한 경쟁자들의 협공도 눈에 띄고 있다.

이낙연 후보의 맹추격을 받고 있는 1등 주자 이재명 후보는 14일 CBS 라디오에서 과거 검찰 수사를 받다가 사망한 이낙연 후보 측근과 관련해 “그분이 전남지사 경선 때 가짜 당원 명부를 만들고 해서 시정 받은 핵심 측근”이라며 “본인의 주변을 먼저 돌아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과거 공격 받았을 때 권한을 행사해 무엇을 했느냐를 봐야 한다”며 “높은 자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유능한 사람은 아니다”라고 이낙연 후보를 직격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날에도 각 후보의 선출직 공격

자로서 공약 이행을 검증을 제안한 바 있다. 전남지사 출신인 이낙연 후보를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다.

추미애, 박용진 후보도 이낙연 후보를 정조준하는 등 2위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추 후보도 언론 인터뷰에서 이낙연 후보를 향해 “당 대표로서 집수를 드린다면 ‘뺑뺑’”이라며 “당 대표 시절 권리당원이 즐겼다. 지지율도 폭락했다”고 말했다. 또 “4월 보궐선거에 참패했는데 사령관은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누구를 탓하면 안 된다”며 “신뢰를 잃었다. 그냥 우아한 말로 정치가 되지는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예비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낯선 논쟁을 벌여 ‘반영 연대’에 가까워 보였던 박용진 후보도 타격을 바꾼 모습이다. 박 후보는 MBC 라디오에서 이낙연 후보를 가리켜 “그저 그런 후보이고 국민에게는 식상한 후보”라며 “총리로서 부동산 전쟁에서 패배한 장수다. 사면론으로 곤욕을 치르고 당헌·당규 고쳐 (재보선) 후보 내는 것으로 패배를 자초했다”고 했다.

정세균 후보는 전남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의) 적통·적자는 이광재 의원과 저밖에 없다”며 우

회적으로 ‘민주당 적통론’에서의 우위를 내세웠다. 이를 두고 박용진 후보가 ‘혈통 논쟁’이라고 비판하자, 정 후보측은 “정체성을 혈통으로 왜곡해 비난하는 짚수 공격이 구태정치”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이낙연 후보는 현재 반등세를 분석해 보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며 집중 견제를 뚫고 이날 말에는 역전할 수 있다는 태세다. 예비경선 토론을 통해 안정감의 우위를 확인한 만큼, 공방이 격화하더라도 다른 후보들이 오히려 ‘실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자신감도 깔았다.

이낙연 후보 캠프 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급상승하는 후보를 향한 문제제기나 정책·도덕성 검증은 예상했던 바”라며 “하연 할수록 이낙연 후보의 진면목이 드러날 것이다. 겸손하고 진솔하게 모든 것을 드러내고 평가받겠다”고 말했다.

이낙연 후보는 전남 예비경선에서 탈락한 양승조 총남지사를 만난 데 이어 이날은 강원도를 방문해 최순수 지사와 오찬을 하고, 밤에는 목포로 이동해 김경수 경남지사의 장인상 빈소를 방문한다. 이어 주말까지 광주·전남과 전북을 잇달아 방문하며 외연 확장에 주력할 방침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대선 양자 대결, 이재명 43.9%·윤석열 36%

한길리서치 조사

윤, 이낙연엔 오차범위내 앞서

여야 대권주자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오차범위 밖으로 밀리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나왔다.

쿠키뉴스가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0~12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양자 대결에서 이 지사는 43.9%, 윤 전 총장은 36%의 지지를 각각 기록했다. 두 사람 간 지지율 격차는 7.9%포인트로, 이번 조사의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밖이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는 16.2%, ‘잘 모름·무응답’은 3.9%로 집계됐다.

야권의 윤 전 총장이 여론 주자인 이 지사에 뒤지는 흐름이 잇따라 수적으로 드러날 것이어서 주

목된다.

앞서 글로벌리서치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실시한 양자 대결 조사에서도 윤 전 총장은 이 지사에게 오차범위 밖(8%포인트)으로 밀린 바 있다. 이번 한길리서치 조사를 보면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대에서 윤 전 총장이 이 지사에게 밀렸다.

지역별로는 이 지사가 호남과 인천·경기에서, 윤 전 총장은 대구·경북과 충청권에서 각각 앞섰다.

한길리서치 측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1일까지 1차 예비경선을 치른 민주당의 컨센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윤 전 총장은 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와의 양자대결에선 36.7% 대 31.7%로 우위를 보였다. 지지율 격차는 5.0%로 오차범위 내였다. 여론조사와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연합뉴스

민주당 경선 일정 조정 착수...주내 결론

이재명 측 “국감 이전까지였으면 좋겠다”

당 선관위 모든 후보들 입장 확인

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한 후보들의 입장을 모두 확인하고 경선 일정 조정에 사실상 착수했다.

이상민 당 선관위위원장은 14일 오후 선관위 회의 를 마치고 “(코로나) 상황이 엄중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다양한 채널을 통해 각 후보 측, 지도부와 의견 교환을 하고 있다”며 “증거를 모아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6명 후보 중 5명으로 부터는 8월 7일 시작하는 지역순회 일정을 순연해야 한다는 요청을 받았고, 이재명 후보 측도 ‘당의 결정이 어떠한 따르겠다. 다만 연기되는 시점이 국경감사 이전까지였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후보 6명의 입장을 확인함에 따라 선관위와 당 지도부가 이번 주 내에 경선 연기 여부에 대해 결

론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후보 측이 거론한 ‘국감’ 일정을 고려한다면 당 후보 확정일을 기존 9월 5일(결선투표시 9월 10일)에서 추석 연휴(9월 20~22일) 전까지 2주가량 늦출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예년의 경우 국경감사는 보통 추석을 전후해 진행됐다. 지난해에는 추석 연휴 이틀 뒤인 10월 7일 국감이 시작됐다.

당 선관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19일 오후 10시 50분 KBS 토론회, 22일 오후 5시 20분 연합뉴스TV·MBN 토론회 등 TV토론 일정을 확정했다. 2차 선거인단은 오는 16일부터 8월 3일까지, 3차 선거인단은 8월 16~25일까지 모집할 예정이다. 모집 마감한 1차 선거인단은 총 76만명 규모로, 명부가 확정된 대의원·권리당원 당원 규모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확보된 선거인단 숫자만 총 140만명에 달한다. /연합뉴스

여의도 브리핑

이병훈 친족상도례 대상 제외 형법 개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동남구) 국회의원이 14일 친족을 상대로 사기, 공갈 및 배임, 횡령 등의 범죄를 저지른 경우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친족간의 재산범죄가 발생할 경우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친족상도례를 인정하고 있다. 이는 친족 간 내부의 일은 국가형벌권의 간섭 없이 친족 내에서 처리하도록하려는 취지이다. 친족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그 정당성에 대한 의문에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친족을 상대로 사기와 공갈의 죄 또는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경우 친족상도례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이병훈 의원은 “친족상도례의 입법 취지는 가정 내 재산범죄에 대해 가정 내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주기 위함이다. 친족간의 사기, 횡령행위로 인한 재산적 질서의 파괴와 개인의 피해 규모가 커지는 양상을 고려할 때, 이제는 친족간 도둑질에 적용하는 특례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장성토지 (분양 매매)

광주에서 20분 (6M도로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토지평수
(150평, 200평, 500평, 1800평)

★ 전원주택, 창고, 투자적합 ★

010-8660-9801

상가매매 (상무지구)

1) 감정가(시세) 9억
매매가 6억3천 (용 4억)

2) 월수익 300만, (보 4천)

3) 평수 140평, (전용 100평)

▷ 중심상업지역(메가박스 영화관 앞)
6층(60평) 매가4억5천(보2천 200), 용 2억6천
7층(40평) 매가 2억3천(보1천 100), 용 9천

010-6670-980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일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